

제 1 교 시

2021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글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학을 만나는 시간’을 맡고 있는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 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퀴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퀴론에 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다음 화면을 볼까요? (㉠ 화면 제시) 이 화면에 드레스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의 드레스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같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 그럼 이 드레스가 흰색 바탕에 금색 줄무늬 드레스로 보이시는 분도 계시죠? 손 들어 보세요.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럼 이번에는 다른 화면을 볼까요? (㉡ 화면 제시) 노란색 조명으로 빛나는 방 안에 사과가 놓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사과의 색은 무슨 색일까요? (학생들을 바라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빨강이라고 대답했네요. 방금 여러분이 보신 화면은 엘리아슨의 ‘한 가지 색의 방’이란 작품인데요, 엘리아슨은 방 전체에 노란색 조명만을 비추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노랗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보신 사과 역시 노란색으로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사진에 나타난 방과 사과는 노란색입니다. (㉢ 화면 제시) 확인해 볼까요? 방과 사과 모두 노란색 화소값이죠? (웃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방금 여러분이 경험한 현상은 우리의 뇌가 처음 접하는 물체의 색상을 판단할 때 ‘기억색’과 ‘색 항상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억색은 하나의 드레스를 보고 색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물체의 색을 유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사과를 보고 빨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색 항상성 때문이었습니다. 색 항상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던 물체 본연의 색으로 사물을 인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물 본연의 실제 모습일까요? 우리의 뇌가 사물을 인지할 때 감각을 왜곡한다면 기억색이나 색 항상성과 같은 현상에 의해 사물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철학자인 퀴론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인간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인간은 고뇌를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퀴론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판단 중지’입니다. 당시 그리스 말로는 이것을 ‘에포케’라고 했는데, 이것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퀴론은 진리를 얻으려고 할 때 고뇌가 생긴다고 보았고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판단 중지 즉, 에포케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즉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퀴론의 생각은 진리를 찾는 것이 철학의 목적인다고 믿었던 당대의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당연한 것이라 믿었던 생각들도 끊임 없이 의심하고 판단을 보류하라는 퀴론의 주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대 철학자들에게 낯설었던 퀴론의 주장은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퀴론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퀴론의 철학이 후대 철학자들에게 왜 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② 지난 시간의 강연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보여주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개념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강연의 처음과 끝에 진행 순서를 소개하며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강연 중간중간에 지난 시간에 강연한 내용을 상기시키며 강연의 중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 강연자가 사용한 매체 자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기억색’과 관련된 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두 드레스의 화면을 번갈아 보여 주었다.
- ② ㉠: 사람마다 사물에 대한 색 인지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드레스 색이 달라지는 동영상 화면을 보여 주었다.
- ③ ㉡: ‘색 항상성’과 관련된 현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과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두 화면을 비교하였다.
- ④ ㉡: ‘기억색’과 ‘색 항상성’이 일어나는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리 보이는 엘리아슨의 작품을 제시하였다.
- ⑤ ㉢: 인간이 지각하는 물체의 색이 실제의 색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사과와 방의 색 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보여 주었다.

3. 다음은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강연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논리학에서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는 ‘모순율’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라고 들었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퀴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 학생 2:** 같은 길이의 선분인데도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그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강연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어. 기억색이나 색 항상성처럼 뇌에 의한 감각의 왜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더 찾아보아야겠어.
- 학생 3:**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에포케를 통해 아타락시아를 느낀 것일까?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아타락시아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 ② ‘학생 2’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강연 내용의 정보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 내용과 관련된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4~7] (가)는 ‘활동 1’을 위해 참관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를 수행하기 위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평 활동’

[활동 1]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모의 토론 참관하기

[활동 2] 모의 토론 참관 후 쟁점에 대한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자신만의 관점으로 비평문 쓰기

(가)

사회자: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원, 동물 편의 시설 확충 등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은 반려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충동적으로 사고 쉽게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끝으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 2: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에서도 유기되는 동물이 한해 8만 마리에 이릅니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찬성 측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유기 동물 수는 우리나라와 □□국이 비슷해 보이지만, □□국의 반려동물 전체 개체 수는 우리나라의 약 5배입니다. 또한 □□국의 유기 동물 수에는 반려인들이 키울 수 없어 보호소에 맡기는 경우 등도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의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반려인들은 이미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병원 진료비나 반려 용품 구입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면 양육을 포기할 수도 있어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를 내는 성실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 저도 세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1: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등록한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나)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그 비용을 보유세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취지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필요하다. 반대 측에서는 반려인들이 이미 반려 용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이것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보통세로 국가의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재원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과 반려인만을 위해 사용할 재원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국은 유기 동물의 발생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이 보유세로 마련한 재정을 동물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나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환경 오염 처리 비용 등에 충당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반려동물 보유세는 교통 시설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운용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려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세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과세액이 너무 낮으면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유기 동물 감소 효과가 없을 것이고, 과세액이 너무 높으면 반대 측의 주장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반려인들은 양육을 포기할 수 있어 유기 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

4. ‘활동 1’을 수행한 후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찬성 측	반대 측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비용은 반려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유기 동물 감소 기대 효과	반려동물을 충동적으로 사고 쉽게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기 동물이 감소한다. ②	반려동물 보유세의 부담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기 동물이 증가한다. ③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여부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④	반려동물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⑤

5. (가)의 반대 신문과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대 2’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증하고 있다.
- ③ ‘찬성 2’는 상대측의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⑤ ‘반대 2’와 ‘찬성 2’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고 상대측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6. 다음은 ‘활동 2’를 수행하기 위해 구상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발표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취지를 밝히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②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나의 관점을 명확하게 써야겠어.
- ③ □□국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여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 ④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사례로 들며 반려동물 보유세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해야겠어.
- ⑤ 유기 동물과 관련한 반대 측의 주장을 활용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야겠어.

7. <보기>는 (나)에 대해 상호 평가를 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마지막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마지막 문단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입장과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①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물론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
- ②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리려면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③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필요하다.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효과적인 동물 보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 ④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 확보된 재원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고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 과정과 과세액의 합리적 부과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⑤ 반려동물 보유세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보유세가 도입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려인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운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시청 정책 담당자

[학생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등·하교 및 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신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전동 킥보드를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용상의 불편함이 있어 이렇게 건의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때 역까지 이동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법규에서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해서 위험했습니다. ㉠ 그렇지만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의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어 전보다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승할 수 있는 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들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이 편리해져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도 공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공적 대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비싸서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적 자전거를 빌릴 때 운영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의 ㉣ 구상 없이도 바로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마을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늘어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어 교통 체증도 줄어들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도 줄어들 것으로 ㉤ 기대되어집니다. 건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보기>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 < 보 기 > —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정의하며 건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겠어.㉠
- 개인의 경험을 제시하고 건의문을 쓰게 된 배경을 밝혀야겠어.㉡
- 이전 법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하며 건의 내용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건의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야겠어.㉣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의 확대를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거론하며 글을 마무리 해야겠어㉤

① ㉠, ㉡

② ㉠, ㉢

③ ㉡, ㉢

④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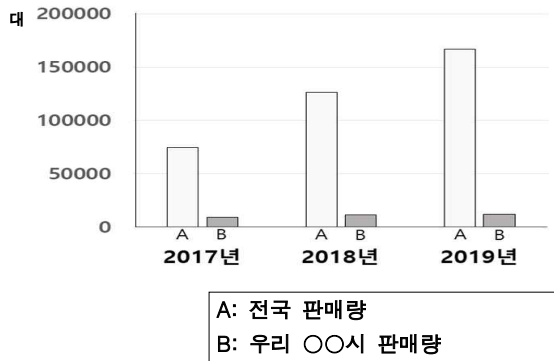
⑤ ㉣, ㉤

9.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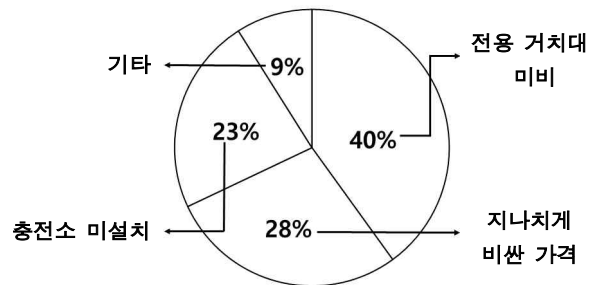
< 자 료 >

(가) <통계 자료>

1.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 증가 현황



2. 개인형 이동장치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한 우리 ○○시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단위: %)



(나) <신문 기사>

지난 3년 간 ○○시의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늘어나는 자전거 통행량에 비해 자전거 도로가 협소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시 교통 관련 정책 담당자는 연내에 자전거 도로 증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 ○○시 지역 신문 -

(다) <인터뷰>

◇◇시는 2017년부터 자전거 공적 대여 서비스 제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공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을 갖추어 시행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는 전년의 0.6ppm에서 0.325ppm으로, 이산화질소는 0.013ppm에서 0.008ppm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는 으뜸 친환경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시청 관계자 -

- ① (가)-2를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거치대, 충전소 등의 제반 시설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나)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우리 시도 개인형 이동장치 공적 대여 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로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들어 건의 내용의 근거로 삼아야겠어.
- ④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지난 3년 간 교통사고의 증가가 우리 시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함을 제시해야겠어.
- ⑤ (가)-2와 (다)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적 대여 서비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10.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간 연결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 바로 뒷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②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③ ㉢: 건의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④ ㉣: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구축’으로 대체한다.
 ⑤ ㉤: 불필요한 이중피동을 사용했으므로 ‘기대됩니다’로 수정한다.

11. <보기>는 <자료>를 탐구하기 위해 찾은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ㅌ, ㄴ, ㅌ,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ㅍ]으로 발음한다. ㉠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ㄷ,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ㅍ]으로 발음한다. ㉡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한다.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ㄲ, ㄴ), ㄷ(ㄴ, ㅌ, ㄷ, ㅌ, ㅎ), ㅍ(ㅍ, ㅌ, ㅌ, ㅍ)’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자 료>

- 그는 네 사람 ㉠ 앞앞이[아바피] 놓인 찻잔에 고루 뜨거운 차를 따른다.
-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 티을만[티은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 자전거 브레이크를 갑자기 ㉢ 밟는[밤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다.
- 그녀는 남의 ㉣ 샅일[상닐]을 해야 할 만큼 고생이 심했다.
- 연분홍 ㉤ 꽃잎[꼰닙]이 봄바람에 흩날리더라.

- ① ㉠의 ‘앞앞이’는 ㉠가 적용되어 교체가 두 번 일어난 결과 [아바피]로 발음한다.
 ② ㉡의 ‘티을만’은 ㉠, ㉣가 적용되어 교체가 두 번 일어난 결과 [티은만]으로 발음한다.
 ③ ㉢의 ‘밟는’은 ㉠, ㉣가 적용되어 탈락과 교체가 일어난 결과 [밤는]으로 발음한다.
 ④ ㉣의 ‘샅일’은 ㉡, ㉣가 적용되어 탈락과 첨가가 일어난 결과 [상닐]로 발음한다.
 ⑤ ㉤의 ‘꽃잎’은 ㉠, ㉣가 적용되어 교체 두 번과 첨가 한 번이 일어난 결과 [꼰닙]으로 발음한다.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우리말에서 하나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에 속하게 되는데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하다.’에서 ‘전’은 명사로 쓰였는데, ‘전 학기보다 이번 학기가 성적이 좋다.’에서 ‘전’은 관형사로 사용되었다.

- 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 ② [명동의 밤거리는 대낮처럼 밝았다.
칠후 갔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날이 밝았다.
- ③ [나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지킵시다.
- ④ [그녀는 아무 말도 않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처리 과정도 매우 복잡했다.
- ⑤ [독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다.
여러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13. <보기>는 ‘되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되다⁰¹

① 【…이】

「1」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2」 【…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 얼음이 물이 되다. /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 물이 얼음으로 되다.

②

「1」 ((주로 피동의 뜻을 갖는 명사와 함께 쓰여))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하다.

㉢ 저 아이는 그 사람에게 양육이 되었다. / 멧돼지가 사냥꾼한테 포획이 되었다.

「2」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는 상태에 놓이다.

㉣ 친구의 충고가 너에게 약이 될 것이다.

되다⁰²

「1」 반죽이나 밥 따위가 물기가 적어 딱딱하다.

㉤ 밥이 너무 되다. / 풀을 되게 쭈었다. / 반죽이 돼서 물을 더 넣었다.

「2」 일이 힘에 벅차다.

㉥ 하루 종일 된 일을 하고 번 게 겨우 이것뿐인가?

-되다⁰³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가결되다. / 사용되다. / 형성되다.

「2」 ((몇몇 명사,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참되다. / 어중되다. / 숫되다. / 막되다. / 못되다. / 안되다.

- ① ‘되다⁰¹’과 ‘되다⁰²’는 각각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의어에 해당하겠군.
 ② ‘되다⁰¹①’의 ‘1.’과 ‘2.’는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가 다르겠군.
 ③ ‘되다⁰¹②’의 에는 ‘【…에게 …이】’가 들어갈 수 있겠군.
 ④ ‘되다⁰² 1.’의 반의어로는 ‘밥이나 반죽 따위가 되지 아니하고 물기가 많다.’는 의미의 ‘질다’가 가능하겠군.
 ⑤ ‘-되다⁰³’의 ‘2.’에는 그 용례로 명사와 결합한 ‘거짓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용절은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온 절을 말한다. 인용절은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뉜다. 직접 인용절에서는 (가)의 (1)에서와 같이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절에서는 (가)의 (2)에서와 같이 조사 ‘고’를 사용한다. 이때 조사 ‘라고’와 ‘고’는 인용절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인용절 속의 대명사, 어미, 인용 조사, 시간 표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 (가) (1) 그녀는 “나는 지민이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2) 그녀는 자기가 지민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 인용절은 안긴문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인용절을 안은문장의 형태는 현대 국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의 (1)에서 인용절 앞에 오는 ‘닐오디’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이고, 문장의 끝에 오는 ‘흐니라’는 인용동사라고 하는데, 중세 국어는 대부분 인용절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나)의 (2)처럼 문장의 끝에 인용동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의 (3)처럼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 ‘니르시니히다’가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인용절을 구분하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 (나) (1) 제 **닐오디** 臣(신)은 이 酒中(주중)엿 仙人(선인)이로라 **흐니라** 「두시언해」
[제 이르되, 신은 이 주중의 선인이라고 하였다.]
(2) 善宿(선숙)ㅣ 또 **무로디** 네 어느 고대 난다 「월인석보」
[선숙이 또 묻되 “네 어느 곳에서 낳았느냐”]
(3) 如來(여래)* 상네 우리를 아드리라 **니르시니히다** 「월인석보」
[여래 항상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르셨습니다.]

* 如來(여래): ‘석가모니여래’의 준말. 부처의 존칭.

※ (나)-(1)~(3)의 []안에 있는 현대어 풀이는 중세 국어의 문장 구조를 따른 것임.

1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어제 민수가 ‘나’에게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직접 인용문]

어제 민수는 나에게 “내일 나에게 올 수 있니?”라고 물었다

↓

[현재 ‘나’가 어제 민수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간접 인용문]

어제 민수는 나에게 [㉠] 물었다.

- ① 내일 나에게 갈 수 있냐고
 ② 오늘 나에게 갈 수 있냐고
 ③ 오늘 자기에게 올 수 있냐고
 ④ 내일 자기에게 올 수 있냐고
 ⑤ 내일 자기에게 갈 수 있냐고

1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탐구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보기 2>에서 골라 묶은 것은? [3점]

— < 보 기 1 > —

[A] 이 比丘(비구)] … 널오더 내 … 너희들홀 업시우디 아니호노니 너희들히 당다이 부테 드외리라
호더니 「석보상절」
 [이 비구가 … 이르되 “내 너희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니, 너희들이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다.” 하더니]

※ []안에 있는 현대어 풀이는 중세 국어의 문장 구조를 따른 것임.

— < 보 기 2 > —

ㄱ. [A]의 ‘드외리라’는 (가)-(1)의 ‘라고’와 같이, 인용절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볼 수 있겠군.
 ㄴ. [A]의 ‘호더니’와 (나)-(1)의 ‘호니라’는 인용동사라고 볼 수 있겠군.
 ㄷ. [A]의 ‘널오더’는 (나)-(1)의 ‘널오더’와 같이, 인용절의 앞에 위치하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라고 볼 수 있겠군.
 ㄹ. [A]의 ‘널오더’와 ‘호더니’의 위치로 보아, [A]는 (나)-(2)와 같이 중세 국어에 주로 나타나는 인용절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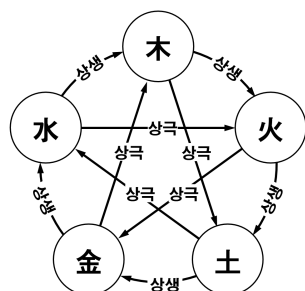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동양인들은 구름이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숨을 쉰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 모두가 ‘기(氣)’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실은 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여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을 공기(空氣)라고 ㉠ 불렀다. 또한 기의 모임과 흩어짐에 따라 만물도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즉 흩어진 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동양적 사고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주로 유목 생활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한군데에 정착하기보다는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언제든 떠나야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개척하고 적응해야 할 대상이었다. 현재의 ‘이 공간’에서의 삶이 언제든 다음의 ‘저 공간’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 ‘여기’보다는 더 살기 좋은 ‘저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이상향을 지향하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달리 일찍부터 농경이 자리 잡은 동양에서는, 한 지역에 정착하여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곳이며 다른 곳인 ‘저기’로의 이동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농경의 터전인 ‘여기’ 즉, 자연에서의 현실적 삶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났다. 때문에 동양에서는 삶의 터전인 자연을 합일의 대상이자 가장 닮고 싶은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자연은 스스로 생성을 거듭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이때 그 원리를 주관하는 존재를 천(天)이라 하였다.

하늘[天]과 인간 세계의 관계는 한나라 동중서(董仲舒)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동중서는 하늘은 스스로 움직이고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이며, 사람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또한 하늘은 선(善)의 의지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보았다.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즉, 하늘을 닮은 인간이 기를 매개로 하늘과 서로 호응한다는 것이다. 사고를 [A] 주관하는 인간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닮은 것이고, 지상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발이 평평한 것도 땅을 닮았다 하며 인간을 하늘의 축소판이라고 보았다. 때로는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한다. 그러면 하늘은 자연의 운행을 어긋나게 하여, 땅에서의 어긋난 인간의 삶을 경계하고 하늘의 뜻을 돌아보게 하여 바로잡으려 한다.

그는 우주 만물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때 인간과 자연은 기를 매개로 서로 감응한다. 인간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들여 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은 상대적 행위이다. 하지만 들여 마시는 것은 내쉬기 위한 과정이고 내쉬는 것은 들여 마시기 위한 과정이므로 상보적(相補的)이다. 음양 역시 대립하지만 상보적이다. 이는 이 세상의 만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음양의 이치는 우주 만물의 변화



<그림>

양상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으로 설명한다. 오행의 이치는 세상 만물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으며 존재함을 보여 준다. 오행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관계이다. 상생은 기운을 채워주어 북돋워 주는 관계이며, 상극은 대립하며 기운을 약화시키는 관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오행 중 하나인 나무[木]는 물[水]에서 나와 생성(生成)하므로, 나무는 물과 상생의 관계이다. 반면 나무[木]는 쇠[金]를 만나면 사멸(死滅)하므로, 나무는 쇠와 상극의 관계이다. 이처럼 오행은 상생의 기운으로 보완하기도 하고 상극의 기운으로 약화되기도 한다. 음양과 오행은 만물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서로 관계를 맺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나,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 인식이나 모두 인간

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모색해왔다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인간을 둘러싼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인간의 삶이 위협받게 된 현대 사회에서 우주 만물이 상보적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한다는 동양적 사고는 매우 가치가 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양과 서양의 사유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동양적 사유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③ 동중서와 후대 사상가들을 비교하여 천인감응설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④ 천 사상과 관련된 오행의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를 절충하여 현대 사회 위기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상보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순환한다.
- ② 동양에서 만물을 이루는 기는 형태는 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 ③ 음과 양의 상보적 관계도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④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의 ‘여기’는 현실적 삶의 공간이자 떠날 수 있는 공간이다.
- ⑤ 동양에서는 서로 다른 생명체나 사물도 기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 <보기>는 윗글을 심화 학습 하며 정리한 내용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하늘에는 기쁨과 성냄, 슬픔과 즐거움의 기(氣)가 있다. 봄에는 하늘의 기쁨의 기로, 가을에는 성냄의 기로 만물이 태어나고 시들며, 여름에는 하늘의 즐거움의 기로, 겨울에는 슬픔의 기로 만물이 자라나고 숨게 된다. 인간의 희로애락(喜怒哀樂) 역시 이러한 하늘을 닮은 것이다.
- 위정자의 실책으로 인간의 삶이 혼란스러워지면 하늘이 재이(災異)를 일으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災殃)을 일으킨다.

- ① 인간에게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기와 인간의 기가 서로 호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 ② 생성과 소멸의 순행으로 계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은 하늘을 닮으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군.
- ③ 하늘이 ‘재이’를 일으키는 것은 땅에서의 인간의 어긋난 도덕성을 바로잡아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군.
- ④ 하늘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하늘의 뜻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군.
- ⑤ ‘재앙’ 이전에 ‘재이’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뜻을 돌이켜 보게 하여 하늘을 닮은 인간의 근본을 다시 찾게 하려는 것이군.

19. ㉠와 관련하여 <보기>의 두 번째 처방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의학서'의 처방 사례]

한 아이가 구토하며 설사를 하자, 여러 의원들이 독기를 빼내기 위해 약을 처방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의원 갑이 처방하자 구토와 설사가 멈추어 증상은 완화됐으나, 여전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두 번째 처방을 내리자 아이는 회복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의원 갑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몸의 장기인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은 각각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에 대응됩니다. 장기의 병은 그 장기의 기(氣)가 부족하거나 과할 때 생기니, 상생 및 상극의 관계에 있는 장기의 기운을 조절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은 비장과 신장이 모두 허약해서 그러한 것인데, 저의 첫 번째 처방으로 비장의 기는 채워졌지만 신장의 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처방을 내리자 병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 ① 상생 관계에 있는 폐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신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② 상생 관계에 있는 간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신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③ 상생 관계에 있는 심장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비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④ 상생 관계에 있는 간의 기운을 내려 주어 부족한 비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 ⑤ 상극 관계에 있는 비장의 기운을 올려 주어 부족한 신장의 기운을 채워 주었겠군.

2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화는 또 다른 화를 불렀다.
- ②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 ③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 ④ 친구는 반가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 ⑤ 그 가게는 옆 가게보다 값을 비싸게 불렀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학적으로 해석은 법관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은 해석을 거친 다음 개별 사안에 적용된다. 법조문의 의미로만 한정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법발견’, 법조문의 의미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까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법형성’이라 한다.

법발견은 법관이 적합한 법률 조문을 찾아서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삼단논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적삼단논법은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구성되는 연역적 추론 과정을 법률 적용에 응용하는 것이다. 즉 대전제인 법률의 내용에 소전제인 법적사태가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법적사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키며, 이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포섭이라고 한다. 이때 ㉠ 법발견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법관은 법률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섭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의 법관의 역할은 법률의 완전성을 신뢰하고 법적 분쟁을 법적삼단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조문이 이러한 인간 행위들을 완벽하게 포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률 조문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명제의 형태로 기술된다. 또한 법을 제정하는 시점에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예측하여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입법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률의 불완전성을 ‘법률의 흠결’이라고 한다.

법률의 흠결은 크게 명시적 흠결과 은폐된 흠결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흠결은 적용할 법률 조문이 다양한 법적사태들을 충분하게 포섭할 정도로 내용을 갖추지 못하여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은폐된 흠결은 법률 조문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률을 세부적으로 한정해야 하는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 등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과잉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률의 흠결 때문에 법관이 법적 판단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이때 법관은 법형성을 통해 그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흠결은 법률의 유추 적용을 통해 논리적으로 보충된다. 즉, 법률 조문의 공백으로 인해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유사한 다른 사안을 규율하는 법률을 찾아 이를 해당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조문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실수로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해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은폐된 흠결은 목적론적 축소 적용이라는 방법으로 보충될 수 있다. 이는 법률 조문에 포섭될 수 있는 사례들 중에서 입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형성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법률의 유추적 적용이든 목적론적 축소 적용이든 법형성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조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법관이 흠결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때에는 해당 법률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현한다. 삼권이 분립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법을 만들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권을 갖는다.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데, 이를 사법권의 법적 기속(羈屬)이라 한다. 따라서 법관의 법형성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입법의 취지와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논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하지만 법관의 법형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를 들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 형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은 범죄 행위를 판단하는 시점에 적합한 법률이 존재

해야 하며, 그 조문에 명확히 포섭되는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한다는 원리를 따른다. 만일 형법을 적용할 때 유추 적용을 인정하면 새로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경우 법 적용 시 법관의 법형성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 권력이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1. 밑글을 통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법발견과 법형성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인가?
- ② 법발견과 법형성 과정에서 법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③ 법발견과 법형성의 법적 적용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④ 법발견과 법형성 중 법률의 완전성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⑤ 법발견과 법형성의 관점에서 흄결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22. <보기>의 ‘예링’의 입장에서 ㉠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개념법학은 법체계와 법률의 완결성을 신뢰하고, 법률의 개념적 분석과 논리적 추론으로 법적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외부 요소와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예링은 법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실용적인 수단이며, 입법의 의지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개념법학은 법률을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의 천국에서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었다.

- ① 법률을 제정한 사회적 목적과 의도에 맞게 법률 조문의 범위로만 판단해야 한다.
- ② 법률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충실하게 적용하려면 법률의 완결성을 신뢰해야 한다.
- ③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법의 목적과 입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법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입법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 ⑤ 법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외부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3. ㉠의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 < 보 기 > —

- ㉠. 법관은 사안에 따라 법률 조문에 반대되는 판단도 할 수 있다.
 ㉡. 법관은 자신의 주관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법관의 임무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 법관은 불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포섭할 때에는 법조문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다음은 학생들의 모의 법정에 관한 내용이다. 윗글과 <자료>를 읽고 24번, 2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사건 개요]

‘갑’은 풀을 모아 불을 붙인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붙어, ‘을’이 소유한 과수원을 태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관련 법률 내용]

형법 제3조(실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조 또는 제2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생의 판결문]

[학생 1]	<p>형법 3조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은 ‘제1조 또는 제2조에 기재한 물건’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과실로 타인 소유의 과수원을 태운 갑의 행위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p> <p>갑의 행위는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처벌은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가능하다.</p>
[학생 2]	<p>형법 3조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이 ‘제1조 또는 제2조에 기재한 물건’ 전체를 수식한다면, 타인이 소유한 물건 또는 건물을 과실로 태운 사람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 타인이 소유한 건물을 방화한 경우를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방화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 판단은 불합리하다.</p> <p>‘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을 제1조만 수식한다고 보고, 제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타인이 소유한 건물을 과실로 태운 갑의 행위도 이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므로 처벌해야 한다.</p>

* 실화(失火): 잘못해서 불을 냄.

* 소훼(燒燬): 불에 태워 없앴.

24. ‘학생 1’과 ‘학생 2’의 공통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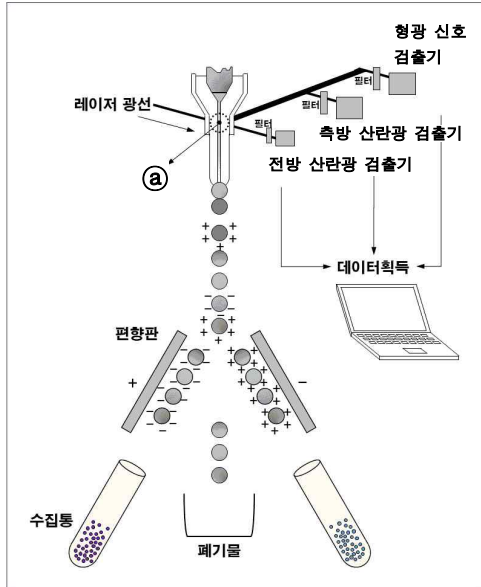
- ① 갑의 행위는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② 갑의 행위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
- ③ 실화는 방화의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 ④ 포섭할 수 없는 법적사태는 유사한 법률로 판결해야 한다.
- ⑤ 법률로 해석될 수 없는 예외의 경우는 법적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이 갑의 처벌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군.
- ② 학생 2는 다른 법률 조항의 처벌 수위를 참조하여 자신의 판결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있군.
- ③ 학생 2는 갑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발생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1과 달리 해석하고 있군.
- ④ 학생 2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구절이 제1조와 제2조를 수식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률 조문의 완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이군.
- ⑤ 학생 1과 학생 2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법적삼단논법에서 대전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의 발생 여부나 암의 악성도 등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세포의 핵이나 DNA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암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임상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세포 분석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암의 발생 여부나 악성도 및 세포의 현재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형광 염료로 세포, DNA 등의 세포 내 물질들을 염색한 후 이를 부유액 상태로 만들어 유세포 분석기 내부에 고속으로 통과시켜 세포의 물리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그림 1> 유세포 분석기 기본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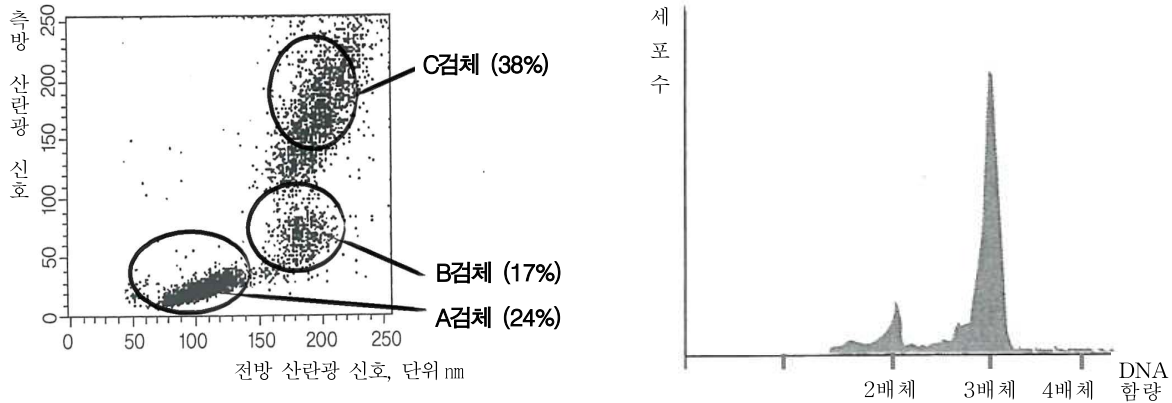
유세포 분석은 유세포 분석기로 빛의 세기를 통해 세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세포 검체를 하전시켜 분류하는 방법이다. 유세포 분석법을 시행할 때에는 먼저 형광 물질로 염색된 세포 검체를 부유액 상태로 만든 후 유체실의 세포 운반 노즐에 주입한다. 주입된 부유액이 레이저 광선이 조사(照射)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반사 거울과 조정 렌즈로 검체의 중심에 초점이 맞도록 조정된 레이저 광선이 조사된다. 이 광선은 <그림 1>의 ① 지점에서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는 세포 검체들과 부딪힌 후 산란되거나 세포 내부로 흡수되는데,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는 방향인 광축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세포의 크기와 표면적에, 레이저 광선의 직각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는 세포 과립성과 내부 복잡도에 비례한다. 또한 세포에 염색된 형광 물질은 조사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고유한 파장의 형광 신호를 방출한다. 방출된 형광 신호의 양은 세포 내의 DNA 함량에 비례한다. 통상 사용하는 형광 물질인 FITC와 PE는

488nm의 레이저 빛을 받으면 약 535nm의 파장의 녹색 빛과 약 585nm의 파장의 주황 빛이 각각 방출된다.

전방 산란광 검출기는 광축 방향으로 산란하는 전방 산란광을, 측방 산란광 검출기는 측방 산란광을, 형광 신호 검출기는 세포 검체에서 방출되는 형광 신호를 검출한다. 각 검출기 앞에는 광학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분석하려는 목적에 따라 광학 필터를 선택하여 특정 신호의 파장을 검출한다. 예를 들어 FITC가 방출하는 형광 신호를 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535nm 근처의 파장을 통과시키는 광학 필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530 \pm 15\text{nm}$ 의 파장을 통과시키는 ‘530/30’ 광학 필터를 사용한다.

검출기를 통과한 산란광은 광전자관에 의해, 형광 신호는 광전자 증폭관에 의해 증폭된 후 전기 신호로 바뀌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 이들은 각 세포 별 크기와 같은 물리적 특성이나 내부 복잡도 등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2차원 좌표상의 X축과 Y축 상에 점들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림프구, 단핵구, 호중구 등으로 분류되는 백혈구를 세포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에는 X축을 전방 산란광 신호 세기로, 세포 내부의 복잡도를 분석할 때에는 X축을 측방 산란광 신호 세기로 설정한다. 이때 Y축을 해당하는 세포의 검체 수로 설정하면 세포의 크기나 내부 복잡도 등에 따른 세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전방과 측방 산란광 신호를 한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 세포 별 크기와 내부 복잡도의 상관관계를 세포의 분포 비율로 파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사람의 정상적인 체세포에는 2배체 염색체들이 들어있는데, 분열이 진행될 때는 그 수가 두 배로 증가되었다가 체세포 분열이 완료되면 세포가 둘로 분열되어 다시 2배체가 된다. 그러나 암세포의 염색체 수는 정상 세포와 다르게 나타난다. 세포 내 DNA 함량은 염색체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 세포와 암 세포는 DNA의 함량이 다르다. DNA는 형광 신호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형광 물질로 DNA를 염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다. 암 발생 여부를 알기 위해서 동일한

형광 물질로 염색된 DNA는 동일한 파장의 형광 신호를 방출한다. 이 경우 세포 내 DNA 함량에 따라 방출되는 형광 신호의 양이 달라지므로 <그림 3>과 같이 표시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암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



※단, 각 검체의 ()는 전체 검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그림 2>

<그림 3>

한편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생물학적 특성에 차이가 나는 세포들을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혈구 세포에서 림프구와 단핵구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림프구는 양(+)으로, 단핵구는 음(-)으로 하전되도록 설정한다. 세포 검체가 레이저 광선 조사부를 통과하면, 세포 검체의 유형이 순간적으로 측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전하가 세포 부유액에 하전된다. 이후 이 세포 부유액에 초음파 진동을 가하면 부유액이 물방울로 변환되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편향판을 통과하여 림프구는 음극판 쪽으로, 단핵구는 양극판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이외의 세포는 하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러한 유세포 분석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세포의 물리학적 특징과 생물학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레이저, 필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가 지닌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의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6.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를 통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유세포 분석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세포의 핵이나 DNA 상태 분석이 암 치료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유세포 분석법에서 검사할 세포를 부유액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 ③
○ 유세포 분석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세포의 물리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유세포 분석법에서 세포 내 물질을 형광 염료로 염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 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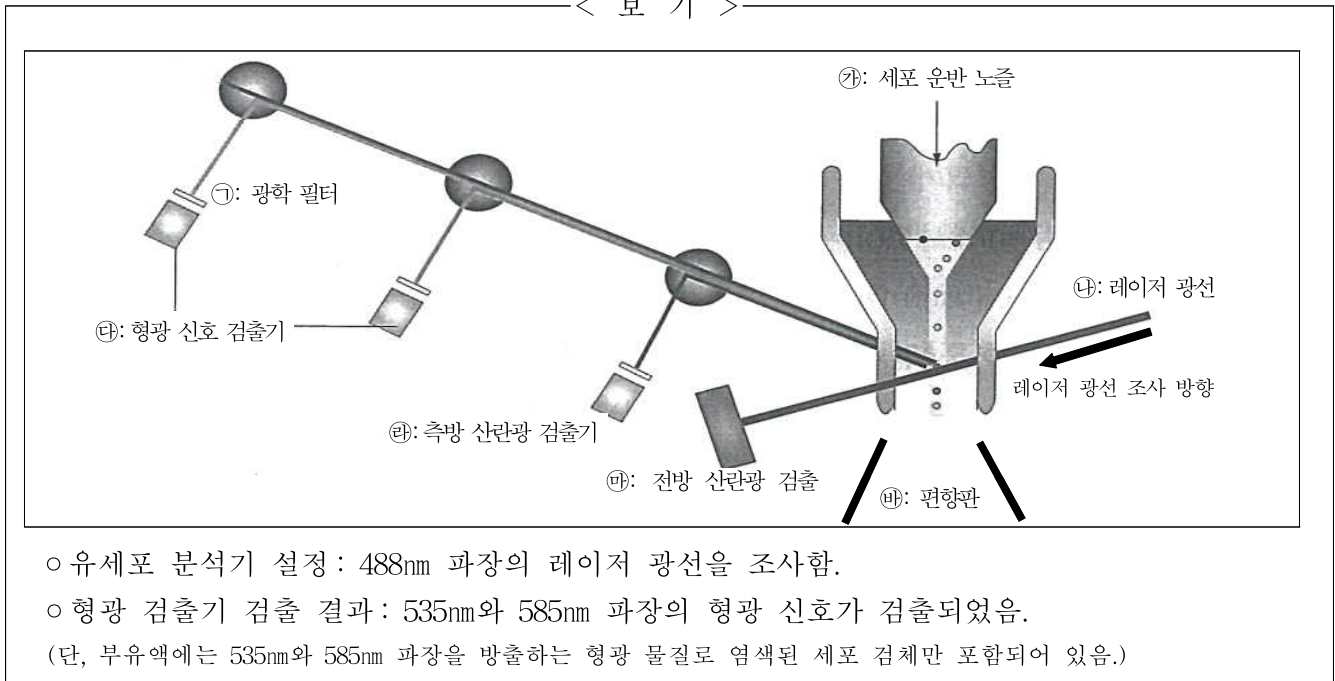
- ① 세포 검체는 세포 운반 노즐에 주입된 후 형광 물질로 염색된다.
- ② 유세포 분석 방법보다 형태학적 관찰 방법의 검사 소요 시간이 짧다.
- ③ 검출기를 통과한 산란광은 광전자 증폭관에 의해 증폭된 후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 ④ 세포 검체에 부딪혀 전방 산란 검출기를 통과한 빛을 분석하면 세포의 크기와 표면적을 알 수 있다.
- ⑤ 세포의 물리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된 레이저 광선은 세포 검체에 부딪힌 후 모두 산란된다.

28. 윗글과 <그림 2>,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림 2>로 볼 때, B는 A보다 세포 과립성과 내부 복잡도가 크다.
- ② <그림 2>로 볼 때, 세포 크기가 작더라도 전체 검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 수 있다.
- ③ <그림 3>을 보면, 3배체의 존재를 통해 환자의 암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그림 3>의 경우 DNA 함량이 큰 검체일수록 전체 세포 검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 ⑤ <그림 2>는 세포 별 크기와 내부 복잡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림 3>은 방출하는 형광 신호의 양에 따른 세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9. <보기>는 유세포 분석기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① ㉔에 주입되는 세포 부유액에는 FITC와 PE로 염색된 세포 검체가 포함되어 있겠군.
- ② ㉕는 반사 거울과 조정 렌즈의 의해 세포 검체의 중심에 초점이 맞도록 조정되었겠군.
- ③ ㉘에 '560/30' 광학 필터를 부착했다면, ㉙에서는 585nm 파장의 형광 신호를 검출하지 못했겠군.
- ④ ㉖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세기는 ㉗에서 측정된 신호와 달리 세포 검체 내부에 포함된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겠군.
- ⑤ ㉖를 통과하여 녹색 형광 신호를 방출한 세포 검체가 음으로 하전되었다면 주황색의 형광 신호를 방출하는 세포 검체는 음극판으로 분리되었겠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닢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 가도 가도 왕십리(往十里) 비가 오네.

웬걸, 저 새야

올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일어나 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별새가 운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데.

비가 와도 한 닢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 김소월, 「왕십리(往十里)」 -

(나)

어머니 장사 떠나시고 다시 맡겨진 송천동

봄날은 골짜기마다 유난히 햇볕 밝게 내려서

날이 풀리면, 배고파지면 아이들 따라

바위 틈에 숨은 게들 잡으러 개펄로 갔다

게들은 바위 모서리나 청태 낀 비탈에

제 몸 가득 흰 거품 부풀려 먼 수평선 바라보아도

해종일 바람 불고 파도 그치지 않아서

㉡ 송천동, 선뜻 발자국 지워지며 끝없던 모래벌

어느새 그 해 여름 지나고 막막한 가을도 가서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

송천동, 아득한 방죽 따라 구름 몰려와

눈 내려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

누구는 어느 집 양자되고 다시 몇 명은
 낯선 사람 따라서 바다 건너 떠나갔지만
 모른다,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 부질없이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
 송천동 송천동 바람 불어 게들 바위 틈에 숨던 곳

- 김명인, 「머나먼 곳 스와니 I」 -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쉽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시는 일제 강점기 백성으로서 겪는 비애와 한(恨)을 나그네의 심정과 비를 연계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 ‘한 닷새’ 정도 내리는 비는 여정에 지친 나그네에게 쉴 수 있는 시적 상황이다. 반면,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에는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하는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다. 당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드레와 스무날’ 경은 조수가 낮아 바다로 통하는 물가의 바닥이 드러나 조개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때 내리는 비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반면, ‘초하루 삭망’ 때에는 어차피 조수가 높고 물도 탁하여 일하지 못할 때가 많아 비가 와도 그만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온다고 하고, 가도 그만인 때에는 간다고 하는’ 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대 우리 백성들의 서러움이 화자의 심정과 처지에 맞물려 표현되고 있다.

- ① ‘온다’, ‘오누나’, ‘오는’, ‘울지라도’의 연쇄적 변주를 통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군.
- ② ‘한 닷새’ 오는 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과 유사하겠군.
- ③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정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비 맞아 나른해서’와 ‘운다’를 통해 시적 대상이 여정에 방해가 되는 비를 맞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는 비가 다른 공간에서도 내리는 상황을 화자가 전달하며 공간적 확장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부재한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의 상황 극복 의지를,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준다.
- ③ ㉠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서를, ㉡은 과거 상황에 대한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이르지 못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고뇌를 보여 준다.
- ⑤ ㉠과 ㉡은 모두 그 공간과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화자의 인식 전환의 과정을 보여 준다.

33.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난히 햇볕 밝게’ 내리는 봄날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을 통해 ‘어느 집 양자’로 된 화자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 ④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는 화자의 내면에 남아 있는 그리워했던 순간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를 통해 ‘모른다’고 말하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느린 물히
 정자(亭子) 압 너븐 들히 울울(兀兀)히 퍼진 드시
 넘쳐든 기노라 프러거든 회지 마니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펏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므슴 일 비얏바
 닳는 듯 썩로논 듯 밤늦즈로 혼르논 듯
 므조친 사정(沙汀)은 눈궂치 퍼젯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논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노화(蘆花)을 스이 두고 우러곰 좇니논노
 너븐 길 밧기요 진 하늘 아리
 드르고 꼬존 거슨 모힌가 병풍(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중략>

남녀(藍輿)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鸝)** 교태(嬌態)겨워 흐논괴야

나모 새 **즈즈**지어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백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궂칠 줄 모르논가
 즈서리 싸진 후의 산밧치 금슈로다

[A]

황운(黃雲)은 또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괴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돌**를 썩라 브니논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미물커늘
 조물(造物)리 현스흐야 빙설(氷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버려세라
 건곤(乾坤)도 가옴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인간(人間)을 썩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흐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람도 혀려흐고 돌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료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나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리라 유여(有餘)흐라
 이 피히 안즈 보고 저 피히 거려 보니
 번로(煩勞)흔 므옴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야
 다만 혼 청려장(靑黎杖)이 다 뵈 되여 가노미라
 술리 닳어가니 밧시라 업슬소나

불니며 특이며 헤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즈락
 을프락 꼭잡흐락 노혜로 소그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흐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活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령굴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나)

찬연한 봉(鳳)새 날며 옥룡(玉龍)이 서린 듯한 산세(山勢), 푸른 빛 송림(松林) 자락
 지필봉(紙筆峯)과 연묵지(硯墨池)를 갖춘 향교(鄉校)에서
 마음은 육경(六經)에, 의지는 천고(千古) 궁구(窮究)에 둔 공자 제자들
 아! 봄철의 암송(暗誦), 여름의 농현(弄絃)*하는 경(景),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해마다 삼월이면 먼 노정(路程)을 오신
 아! 신관(新官)을 큰 소리로 맞는 경(景),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3수>

붉은 살구꽃 분분(紛紛)하고 방초(芳草)는 무성한데 술동이 앞에서의 긴 봄날과
 짙게 푸른 나무 그늘 속 깊이 잠긴 단청(丹青) 집, 거문고 위로 여름 훈풍(薰風)이 불고
 황국(黃菊)과 단풍이 비단에 수 놓을 제 기러기 날아간 뒤에
 아! 눈[雪]에 달빛이 비치는 경(景),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중흥(中興)한 성대(聖代)에 길이 대평(大平)을 즐기니
 아! 사계절 놀고 지냈시다 그러.

<5수>

- 안축, 「죽계별곡(竹溪別曲)」-

* 농현(弄絃): 거문고나 가야금 등의 현악기를 연주함.

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간의 다채로운 움직임을 열거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학문과 연관된 사물을 제시하여 장소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풍류를 즐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35. (가)의 [A]와 (나)의 <5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황앵 교태 겨워’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5수>의 ‘기러기 날아간 뒤에’와 ‘눈에 달빛’은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의 ‘나모’의 ‘즈즈’진 모습과 <5수>의 ‘방초’는 나무와 풀의 무성한 모습을 통해 여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양풍’은 ‘조으름’과, <5수>의 ‘훈풍’은 ‘거문고’와 어우러지며 여름날의 한가로운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의 ‘황운’은 가을의 들판을 나타내며, <5수>의 ‘황국과 단풍이 비단에 수 놓을 제’는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어적’과 ‘들’이 조용하는 장면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5수>에서는 ‘눈’과 ‘달빛’이 조용하는 장면을 통해 겨울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송순은 ‘내 여기서 소요(逍遙)하고 면앙(倅仰)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으니 나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졌네.’라고 말했다. 여기서 면앙은 굽어보고[면(倅)], 올려다본다[앙(仰)]는 뜻으로 면앙정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면앙이 나타난다. 먼저 정자를 중심으로 넓은 들판과 강물을 면하고 하늘과 산을 앙하는 공간에 대한 면앙이 나타난다. 화자의 시선은 굽어보는 것에서 올려다보는 것으로 이동하여 자연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한다. 한편 시간상의 면앙은 현재를 면하고 과거를 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안즈락 느리락’하는 ‘기러기’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면’과 ‘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군.
- ② ‘므조친 사정’은 눈같이 퍼진 공간에 대한 ‘면’이며 하늘에서 ‘꼬즌’ 모습을 한 ‘모’는 ‘앙’으로, 정자에서 바라본 ‘면앙’의 경관을 조화롭게 드러내는군.
- ③ ‘일월도 한가흐다’는 시간상의 ‘면’을 통한 화자의 생각은 시간상의 ‘앙’을 거쳐 ‘니 적이야 괴로고야’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군.
- ④ ‘인간을 썬나’오기 전의 ‘겨를 업’음으로 인해 ‘청려장’이 ‘되 되여’졌다는 화자의 인식은 시간상의 ‘면앙’을 통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⑤ 화자가 역사적 인물인 ‘이태백’을 떠올리고 ‘호탕정회야 이에서 더 홀소냐’라며 삶의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상의 ‘면앙’에 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 만취당은 정승이 나온다는 명당 터에 있는데, 아버지는 젊을 때 노름 때문에 빼앗겨 버렸고, 정승 자리에 ‘나’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취당을 다시 찾겠다는 집념으로 살고 있다.

아내로부터 ㉠ 내 얘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날 불러 앉혔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말했니! 모난 돌이 정 맞는 뱀이라구.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했으른…… 너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얼마나 고생을 했냐 말여. 그런데 그 벼슬자리에 앉아보지두 못하구 모가지 걱정을 해야 하다니! 너도 니 오대조 할아버님 꼴이 되구 싶으냐? 그분께서두 바른 소릴 하시다가 조정에서 쫓겨나 낙향하신 겨. 처신만 잘했으른 정승 자리는 식은 죽 먹기였다는 겨. 그래설람 낙향해 가지군 오동남구 인사구마냥 일찍 벼슬자리에서 떨어진 당신 신셀 한탄하믄서 당신은 이왕에 그렇게 됐지만서두 자손들만은 줌(겨울)꺼정 푸른 솔잎마냥 되라는 뜻으루다 만취당이라는 당호를 지어 붙이신겨. 나는 아버지의 그 ㉡ 터무니도 없는 얘기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어렸다면 한 차례 종아리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노여운 기색 이긴 했으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낯빛을 살피면서 노여움을 둔구지 앓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말씀대로 만취당의 만취가 겨울철이 돼도 솔잎의 푸른빛이 변하지 않는 걸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노후에도 그 굳은 절조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에요. 내말에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억지를 부렸다. 요새 세상은 옛날하군 달리. 절조를 지키구 살다간 웃음거리가 되는 뱀여. 시류에 맞추어 살아야 하능겨. 그래야 줌에두 늘 푸른 소나무처럼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능겨. 만취당은 그런 뜻으루다 진 당호란 말여. 그런데 니가 아까 한 말, 대체 누가 그러디?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내게 ㉢ 그 얘기를 해준 것은 서예학원을 경영하는 아저씨였다. 물론 아버지도 그 아저씨로부터 만취당의 내력을 들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만취당의 정확한 내력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목이 위험하게 됐다는 것을 아내로부터 들은 뒤부터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절조를 지키느라고 벼슬자리를 잃게 된 오대조처럼 내 신세가 그렇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이었다. 달포 전, 아버지는 나와 아내를 불러 앉히곤 자못 엄숙하게 말했다. 용이 풀 밖에 나면 개미도 침도를 하는 뱀이여. 어찌다가 그런 실수를 했냐? 실수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소신껏 처리한 일이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화를 벌컥 냈다. 치성 드러 낳은 자식이 눈 먼 꼴이여. 야, 이 녀석아! 니가 이 애비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놈이냐? 두말할 필요 읍이 며늘애기 너는 만취당에 내려가 애 낳을 걱정해라. 내말 알겠지? 나는 아이를 낳으러 가다가 숲 속에 이르러 해산을 하게 되는 아내의 모습을 연상하며 쓴웃음을 날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화투불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환영을 피워 올렸다. 나는 아버지가 만취당을 되찾는 데 성공했기를 빌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 부친께서 틀림없이 이 동촌리에 오셨을 텐데…… 이장집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실은…….”

이 경장은 불 단속을 하느라고 굽혔던 허리를 펴고 ㉣ 잠시 멈췄던 얘기를 잇기 시작했다.

“어르신네께서 내려오셨던 건 확실합니다. 이짜, 택짜, 희짜 쓰시는 어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름까지…….”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제 이름과 똑같아서 될 수가 있었습니다만. 실은 어르신네께서…… 저희들이 어제 어르신네를 연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랬소? 연행이라고 했소?”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나를 놀래켰기 때문에 혹 헛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실은 어르신네께서 어제 약주가 과하셔가지고 군청에 들어가 군수 비서실에서 행패를…… 군청에서 연락해 오길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행패라뇨? 무슨 행패를 부렸단 말입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보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으십니다만. 실은 만취당이 헐리게 됐습니다. 만취당뿐만 아니라 동촌리에 있는 모든 집들이 헐리게 된 겁니다.”

“그건 또 ㊤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경장의 설명은 주민들에게 이미 이주비가 다 지불되었고 이주가 완료되는 다음 달부터는 공사가 시작 되게끔 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얘기는 계속되었다.

“어르신네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핫술을 잡수신 끝에 군청에 들어가셔서 군수를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비서실에서 약주가 잔뜩 취하신 분이라 군수를 만나게 해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네께서 화가 나서서 비서실 전화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소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경찰에 연행된 아버지는 술이 깬 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렇게 행동하게 됐던 까닭을 알게 되었고 또 이곳 태생의 노인이기도 해서 군청과 타협해 훈계 방면했다는 것이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어제 밤차로 올라가셨지 싶습니다만, 어젯밤에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길이 엇갈리신 모양입니다. 이장 집에 전화가 있으니 가셔서 맥에 전할 해보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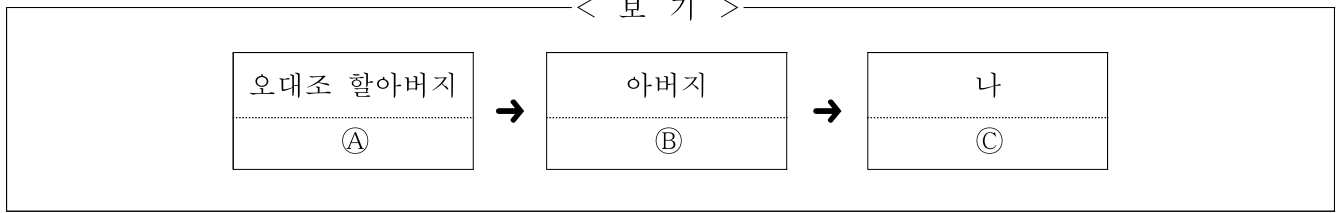
나는 일시에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가 길이 어긋났다는 점도 맥빠지게 했지만 그보다도 이제는 만취당을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게 됐다는 실망감이 결정적으로 나를 그토록 맥빠지게 한 것이었다. 내가 이런데 아버지의 심정은 그야말로 어떠했겠느냐 싶었다.

- 김문수, 「만취당기(晩翠堂記)」 -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중심 소재를 둘러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 내고 있다.

38. <보기>는 ‘만취당’에 대한 인물의 관계를 구조화한 것이다. 윗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물들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①가 지킨 만취당의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실수를 반복하는 ③에게 ②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② ①가 만취당을 세운 내력에 대해 ②는 알고 있으나 ③에게는 그 내력을 고의로 숨기고 있다.
 ③ ②는 ①가 만취당이라는 당호를 붙인 이유를 전달하며 ③가 현실과 타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④ ②는 ①가 만취당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치를 ③가 지니고 살아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⑤ ③은 ①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해서 ②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만취당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사한 심정을 보이고 있다.
39. ㉠~㉤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나’가 ‘아내’에게 부탁했던 얘기
 ② ㉡: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얘기
 ③ ㉢: ‘아저씨’가 서예학원을 경영하게 된 내력을 밝힌 얘기
 ④ ㉣: ‘아버지’가 ‘군수’를 만나 자신에 대한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
 ⑤ ㉤: 동춘리에 와서 ‘이 경장’의 설명에 의해 ‘나’가 알게 된 얘기

40. 용이 물 밖에 나면 개미도 칩노를 하는 뱀이여를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 볼 일 없게 되어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려해서
 ② 소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③ 뜻을 굽히면서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④ 절조를 지키지 못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비아냥 받을 것을 우려하여
 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상천(上天) 일월 성신(星辰)이며, 하지(下地) 후토(后土) 성황(城隍) 사방지신(四方之神), 제천제불(諸天諸佛) 석가여래 팔금강보살(八金剛菩薩) 소소응감(昭昭應感) 하옵소서. 하느님이 만드신 일월은 사람에게 눈과 같은지라. 일월이 없사오면 무슨 분별 하오리까. 소녀 아버 무자생(戊子生) 이십 세 후 눈이 멀어 사물(事物)을 못 보오니, 소녀 아버 허물이랑 제 몸으로 대신하고 아버 눈을 밝게 하여 천생연분 짝을 만나 오복(五福)을 갖게 주어,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를 점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야로 빌었더니, 도화동 심소저는 천신(天神)이 아는지라. 흠향(歆響)*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더라. 하루는 유모 귀덕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하오?”

“어떠한 사람인지 십여 명씩 다니면서 값은 고하간에 십오 세 처녀를 사겠다고 다니니 그런 미친놈들이 있소?”

심청이 속마음에 반겨 듣고,

“여보, 그 말이 진정이요? 정말로 그리 될 양이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숙(老熟)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오되, 말이 밖에 나지 않게 조용히 데려오오.”

귀덕어미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는지라. 처음은 유모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은즉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皇城) 사람으로서 상고(商賈)차로 배를 타고 만 리 밖에 다니더니, 배 갈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어 변화불측(變化不測)하여 자칫하면 몰사(沒死)를 당하는데 십오 세 된 처녀를 제수(祭需)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水路)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왕하옵기로 생애(生涯)가 원수로 사람 사러 다니오니, 몸을 팔 처녀가 있사오면 값을 관계치 않고 주겠나이다.”

㉠ 심청이 그제야 나서며,

“나는 본춘 사람으로 우리 부친 앞을 보지 못하여 세상을 분별하지 못 하기로, 평생에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수하더니, 몽운사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되, 가세가 지빈(至貧)하여 주선할 길 없삽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원(發願)하기 바라오니 나를 사 가는 것이 어떠하오? 내 나이 십오 세라 그 아니 적당하오?”

선인이 그 말 듣고 심소저를 보더니, 마음이 억색(臆塞)*하여 다시 볼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낭자 말씀 듣자오니, 가륙하고 장한 효성 비할 데 없습니다.”

이렇듯이 치하한 후에 저의 일이 긴한지라,

“그리하오.” / 하고 허락하더라.

(중략)

“저 소경 이리로 와 거주 성명을 고하게 하라.”

심봉사가 꿰어앉았다가 시녀를 따라 탐전(榻前)으로 들어가서 세세원통한 사연을 낱낱이 말씀한다.

“소맹은 근본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라 하옵니다. 이십에 안맹하고 사십에 상처하여, 강보에 싸인 여식 동냥젖을 얻어 먹여 근근이 길러 내어 십오 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심청이라. 효성이 출천하여 그것이 밥을 빌어 연명하여 살아갈 제,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시주하면 눈 뜬단 말을 듣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공양미 삼백 석에 아주 몸을 영영 팔려 인당수에 죽었는데, 딸만 죽이고 눈 못 뜨니 몹쓸놈의 팔자 벌써 죽자 하였던니 탐전에 세세 원정(原情) 낱낱이 아뢴

후에 죽자고 불원천리 왔나이다.”

하며 백수풍진(白首風塵) 고루 겪은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며,

“애고, 내 딸 청아!”

옆어지며 땅을 치고 통곡을 마지아니하니, 심황후 이 말을 들으시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벌써 눈에서 피가 두르고 뼈가 녹는 듯하여 부친을 붙들어 일으키며,

“애고 아버지, 살아왔소. 내 과연 물에 빠진 청이오. 청이 살았으니 어서 눈을 뜨시고 딸의 얼굴을 보옵소서.”

[A]

이 말을 들은 심봉사가 어떻게 반가왔던지 두 눈 번쩍 뜨이니 심봉사 두 손으로 눈을 찌찌 비비며, “으으, 이게 웬 말이나? 내 딸 심청이가 살았단 말이나? 내 딸 심청이 살았단 말이 웬 말이나? 내 딸이면 어디 보자!”

하더니, 백운이 자욱하며 청학·백학·난봉·공작이 운무중(雲霧中)에 왕래하며 심봉사 머리 위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심봉사의 두 눈이 활짝 뜨이니, 천지 일월 밝아 왔구나. 심봉사 마음 비취여광하여 소리를 지른다.

“애그머니! 애고, 무슨 일로 양쪽 환하더니 세상이 허전하구나. 감았던 눈 번쩍 뜨니 천지 일월 반갑도다.”

딸의 얼굴 쳐다보니 칠보화관(七寶花冠)이 황홀하여 뚜렷하고 어여쁠사. 심봉사가 그제야 눈뜬 줄을 알고 사방을 살펴보니 형형색색 반갑도다. 심봉사가 어찌나 좋은지 와락 달려들어,

“이게 누구냐? 갑자 사월 초파일날 몽중에 보던 얼굴일세. 음성은 같다마는 얼굴은 초면일세. 얼씨구나 지화자, 이런 경사 또 있을까. 여보게 세상 사람들아, 고진감래(苦盡甘來) 나를 두고 한 말일세. 얼씨구 좋을씨고. 지화자 좋을씨고!

- 작자 미상, 「심청전(沈淸傳)」 -

(나)

왕후 : (장승상 부인을 보고) 그러면 심청이라는 소녀는 분명 죽은가 보이다.

장승상 부인 : (눈물을 씻으면서) 네 아마도 그런가 합니다.

왕후 : 그러니 그는 죽었다니 할 수 없으려니와 그 아비되는 심봉사라도 이 잔치에 오든지 거취를 알든지 해서 찾았으면 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련만.

장승상 부인 : 네에 효녀 심청의 성을 널리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도 지당하신 처분이신 줄 아옵고 신도 주소*로 심봉사를 기다려 마지 않습니다.

(중략)

장승상 부인 : 응 마침 잘 나왔소. 아니 참 내 양딸 심청이지. 심청이 어여 이리 오너라. 중전마마께서 혹시 네가 선불리 할까 하셔서 또 근심을 합신다.

왕후 김가가 심가가 되어서 장님을 아버지라 하고 살기가 거북하리라만 어쩔 수 있니. 네가 아주 영영 심청이가 된 셈만 치려무나. 그러면 출천대효 심청이가 되니 오죽 좋은 일이나.

궁녀 김씨 : 명심하겠나이다.

장승상 부인 : 거리낄 건 조금도 없느니라. 눈을 뜬 사람이라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니 그저 아버지라고만 하고 살뜰히 시중만 들어주면 그만이다.

㉠ **궁녀 김씨** : 중전마마 영이시니 힘껏 시행을 하겠습니까마는 혹시 무슨 서슬에 탄로가 나면……

장승상 부인 : 그럴 리야 없지. 그리고 참 나에게도 마님이라고 깍듯이 불러야 한다.

궁녀 김씨 : 네.

내시 을 : (하수로 등장, 읍을 하고) 황주 도화동 심학규 알현이요.

왕후와 장승상 부인 반기면서 마주 보고는 하수편을 바라본다. 심봉사 내시 을에게 인도받아 등장. 궁녀 김씨와 다른 궁녀들도 심봉사에게로 시선이 쏠리고 궁녀 김씨는 좋지 아니한 안색으로 고개를 숙인다.

장승상 부인 : (심봉사가 등장할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궁녀 김씨를 보고) 그러면 내가 일러 준 대로 잊지 말고 있다가 내가 손짓을 하고 아가 심청아 어서 오너라 너의 아버지 오셨다 하거들랑 아버지 부르고 쫓아와서 매달려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묻거들랑 중전마마께서 마침 그때 해변을 순어하시다가 구해주셨다고 응 그런 말 다 잊잖았지?

궁녀 김씨 : 네.

심봉사 : (내시 을의 인도로 전계*의 자리 위에 엎드려 세 번 절한다.) 소맏은 황주 도화동 사옴던 심학규로.....

왕후 : 응, 네가 심학규시 분명하냐?

심봉사 : 네에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팔자가 기구한 심봉사 심학규에 갈 데 없사옵니다.

왕후 : 그렇다면 너를 기다리던 사람이 따로 있으니 만나 보아라. (장승상 부인에게 눈짓을 한다.)

장승상 부인 : (전계로 나가서) 심생원 나를 알겠소?

심봉사 : ㉠ 어? 이 이 도화동 장승상 부인 아니십니까? 아 참 죽잖고 살아 있으니 또 뵈게 됩니다그려?

장승상 부인 : 네, 껍 반갑소. 그런데 심생원이 정말 반가운 일이 있소.

심봉사 : 네? 반가운 일이라니요? 혹시 뽕덕이네가 그 황봉사 놈하고 여기 온 것을 부인에게서 붙잡아 놓셨습니까?

장승상 부인 : 아아니요. 그 따위 뽕덕어미하고는 만 명을 주어도 아니 바꿀 일이지요.

심봉사 : 그럼 무엇이 반가운 일입니까? 혹시 나라에서 나를 붙잡아다가 전장이나 좀 내어주신답니까?

장승상 부인 : 그것도 있지요. (방백) ㉡ 대번에 불쑥 말을 하면 너무 좋아서 기절을 할 테니 천천히 해야지. (심봉사더러) 그것도 있지만 더 반가운 소식이지요.

심봉사 : 그러면 혹시 우리 우리 심.....(말을 마저 하지 못한다)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 소식입니다.

심봉사 : 심청이 소식이지요?

장승상 부인 : 네, 심청이가.....자세 들으시요, 죽지 않고.

심봉사 : 심청이가, 네 죽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오오 살아 있대요?

장승상 부인 : 네, 살아 있어요.

심봉사 : 그러면 그렇지. (벌떡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어허 좋다. 그러면 그렇지. 내 딸 심청이가 죽다니 될 말인가!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심청이가 우리 딸 심청이가 출천대효 내 딸 심청이가 죽대서 야 천도가 무심하지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글썽 어쩐지 그런 것만 같더라니 거 참 혈육이란 할 수 없는 거야! 어쩐지 어데 가서 살아있는 것만 같더라니 말이야! 호호 좋다. 얼씨구 좋다. 그런데.....그런데 말씀입니다. 장승상 부인 그래 그 애가 지금 있기는 어데 가 있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장승상 부인 : 왜요. 알지요. (궁녀 김씨에게 손짓을 하며) 이 애 심청아 어여 오너라. 너의 아버지 오셨다.

심봉사 : 영? (또 한 번 달리 놀라) 영?

궁녀 김씨 : ㉢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심봉사 : 오오 심청아 어데 보자. (눈도 떴다. 껴안으려고 달려든다) 내가 띠어 주려던 눈도 시방이야 떴다.

궁녀 김씨 : 아이구머니! 송축해라!(돌아서서 전 안으로 들어가며) 장님이라더니 눈을 떴어요. (전 뒤로 퇴장)

심봉사 얼떨떨해서 멍하니 섰다가 전후좌우와 위아래로 둘러본다. (특히 관객에게 눈 뜬 것이 보이도록)
장승상 부인과 왕후는 궁녀 김씨가 실패한 것을 당황하다가 심봉사가 눈 뜬 것을 알고 기뻐한다.

장승상 부인 : 어찌면! (심봉사를 들여다보며) 정말 눈을 떴구려! 원 이런 신통한 도리가 또 있을까?

심봉사 : ㉡ 네 하도 반가워서 눈이 그냥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장승상 부인 : 원 어찌면 몽운사 부처님의 영험이 인제야 발현했나 보우. 그것도 다 심청이가 죽은 정성이지요.

심봉사 : 네 심청이가 또 죽었어요?

장승상 부인 : 네 아니 아이구 이걸 어찌나 내가 입이 방정이야. 그 애가 또 아니라 하고 달아났지! 이걸 어찌면 좋습니까?

왕후 : 할 수 없지요. 일희일비라니 눈 뜬 것이나 다행한 일이니 바르게 말해 주시오.

장승상 부인 : 여보, 심생원 그런 게 아니라 심청이는, 정말 심청이는 저 인당수에서……

심봉사 : 네, 인당수에서? 아니 아까 그건?

장승상 부인 :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이 눈을 뜨니까 질겁을 해서 달아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청이는. 여보 심생원 정말 심청이는 인당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

심봉사 : ㉢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각 찌르면서 옆드려진다) 아이구 이 놈의 눈 구멍! 딸을 잡아먹은 놈의 눈 구멍! 아주 눈 알맹이째 빠져 버려라. (마디마디 사무치게 흐느껴 운다)

- 채만식, 「심봉사」 -

* 흠향:神明(神明)이 제물을 받음.

* 억색: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마음이 답답함.

* 주소(晝宵):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전계(殿階): 궁전(宮殿)으로 오르는 계단의 섬돌.

* 무춤: 놀라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 하던 짓을 갑자기 멈추는 모양.

4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을 암시하고 있고, (나)는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독백적인 서술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나)는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인물이 자신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물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이 겪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욕망을 지향하고 갈망하는 ‘욕망 주체’이자 다른 이들의 욕망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욕망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욕망은 욕망 주체의 끊임없는 노력이나 중재자의 도움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또한 가끔은 중재자의 희생이나 절대적 존재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 예기치 않게 욕망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인당수를 건너고 싶다는 ‘남경장사 선인’의 욕망은 ‘심청’의 욕망이 실현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② ‘천신’은 개별적인 욕망 주체의 지향에 응답하여 욕망을 중재하는 초월적인 힘으로 욕망의 실현에 영향을 준다.
- ③ ‘귀덕 어미’는 ‘아비’의 욕망을 대신 실현하려는 ‘심청’을 위해 수로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자 하는 욕망 주체의 중재자가 된다.
- ④ 자신의 욕망으로 ‘아비’의 욕망을 발원한 욕망 주체는 절대적 존재의 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다.
- ⑤ ‘심봉사’는 자신의 욕망 실현을 염원했던 것에 대해 자책하나 예기치 않게 욕망이 실현된다.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의 궁궐은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나)에서의 궁궐은 심봉사가 현실을 직시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 ② [A]에서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기쁨을 보여주고, (나)에서는 인물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절망감을 드러낸다.
- ③ [A]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에서 일어난 심청의 죽음을 감추려 한다.
- ④ [A]와 달리 (나)에서의 왕후와 장승상 부인이 상의하는 것은 심청의 효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 ⑤ [A]와 달리 (나)에서 심봉사가 자신의 현실적인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심청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 신뢰성을 강조하고, ㉡에서 ‘궁녀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심청’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여 걱정하고, ㉡에서 ‘궁녀 김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 ③ ㉠에서 ‘심청’은 도덕적 가치를 근거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에서 ‘장승상 부인’은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예상되는 문제를 언급하여 상대방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에서 ‘장승상 부인’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하고 있다.
- ⑤ ㉠에서 ‘남경장사 선인’은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언급하며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에서 ‘장승상 부인’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들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다.

45. ㉠~㉤ 중 (나)를 공연하기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장승상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반가움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반응하며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② ㉡: 심봉사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관객을 향해 대사를 한 후 심봉사 쪽으로 몸을 돌리고 대사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③ ㉢: 어색한 태도로 심봉사 앞으로 나오면서 마지못한 목소리로 대사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④ ㉣: 눈을 뜬 것에 대한 신기함과 딸이라고 여겼던 인물이 도망간 상황에 대한 당황함이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 ⑤ ㉤: 심봉사의 애절한 심정을 부각하기 위해 절제된 감정 표현이 드러나도록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글